

선진국 중고차 유통기지 만든다

군산시,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민간사업자 공모

군산시가 중고차 시장의 선진 기반 시설을 조성해 중고차를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의 민간사업자를 공개모집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사업기본계획을 공고해 오는 5월 7일까지 민간사업자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새만금산업단지 19만 7,824㎡ 부지에 선진형 유통구조의중고자동차의 수출·매매시설을 집적화하는 시설의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최종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의 민간부분 재원을 투입하고 조성 후 운영하게 된다.

공모 대상은 법인 및 설립예정법인으로 ▲재정능력(재원조달, 수익 구조 등), ▲운영관리능력(인력대책, 입주요, 플랫폼 운영 등) ▲시설계획(기능 시설 연계성, 시공 리스크관리 등) 등을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시의 기본방향은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를 비대면 유통시스템, 친환경 유통단지 등 자동차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선진국형 중고자동차 유통기지로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조화와 상생을 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중고자동차를 군산의 新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한계에 부딪힌 지역경제가 회복되기 전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역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다"며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견실한 기업을 선정하여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켜 군산 지역경제 및 군산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군산지역의 현대조선소 군산공장 기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산업위기 지역활력 프로젝트사업으로 지정되어 민간재원 포함 1,0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되며 생산유발효과 993억원, 1,043명의 고용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유망 강소기업 육성 전략 통했다

15개사 매출액 12% 고용 인원 10.6% 증가... 4월 9일까지 신규 참여기업 모집

군산시가 10일부터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 2021년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시는 오는 4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2단계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2개사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국내외 마케팅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비를 3년간 매년 3천만원 지원받게 된다.

시 유망 강소기업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분사(공장)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 ▲창업한 지 3년 이상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제조업, 지식기반으로 최근 3년결산 매출액이 400억원 미만이면 된다.

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도내 시군 최초로 시행한 유망 강소기업 지원사업이 올해로 3년째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경제 위기 속에도 R&D로 무장한 군산시 유망 강소기업의 성장세는 두드러졌다.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이 매출액과 고용 인원이 전년대비 8.2%, 2%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유망 강소기업 15개사는 각각 12%, 10.6%로 증가했다.

특히, 文 대통령의 기업방문으로 유명해진 (주)풍림파마텍(2019년 선정기업)은 K-주사기로 알려진 최소 잔여형(LIS) 백신 주사기 개발 성공과 함께 현재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첨단 의

료용 기기 생산 시설을 추가 설립 중에 있다. 또한 도시시설물 전문업체인 (주)태평양(2020년 선정기업)은 중앙부처로부터 기술 향상을 인정받는 등 연구개발에 주력한 결과 전년대비 매출액이 146억원에서 223억원으로 50% 이상 증폭 뛰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은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있다. 최근 기업부설연구소 등 R&D 역량을 갖춘 기업이 대폭 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라며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강소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무연고 고독사 기초수급대상자 특수청소 서비스 운영

군산시가 최근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고인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돕기 위해 유품 정리 및 거주지 특수청소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망(고독사)한 기초수급자의 경우, 등거가족이 없어 시간이 지난 뒤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악취 및 해충 등 불결한

위생문제가 생겨도 지원봉사자, 후원자의 도움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이웃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연고자와 임대인에게도 큰 부담이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수급대상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을 정리하고, 고독사 현장의 뒷수습하는 특수청소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혼자 외롭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마지막 흔적을 경건하게 정리하고, 더불

어 악취와 벌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2차적 위생 문제까지 처리하는 '아름다운 마무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시는 고독사에 노출되기 쉬운 홀몸노인, 장애인, 장애인 은둔형 외톨이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 수·발신 이력을 자동 모니터링을 하는 군산 안심 서비스 앱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복지정책과(☎454-314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원광대학교병원은 예방관리센터 이영훈 교수와 관절류마티스내과 이창훈 교수를 우수 연구자로 선정했다.

원광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우수연구자 선정

이영훈·이창훈 교수

원광대학교병원은 예방관리센터 이영훈 교수와 관절류마티스내과 이창훈 교수를 우수 연구자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원광대병원은 환자·연구 중심, 의료진 후학 양성을 위한 경영이념을 실천하고자 우수 연구자를 선정한다.

원광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은 학문적 성과가 높은 연구 교수를 대상으로 우수연구자상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수

여했다. 병원은 지난해 제출(등록)된 SCI(E) 우수 논문 9편(중복 논문 수 포함)을 분류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윤경호 의생명연구원장은 "의료진의 학문적 성과와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상의학연구소를 통한 신진 연구자 육성사업과 중점지원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임상교수들이 연구에 정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새만금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오는 19일 개장한다.

국내 최대, 신시도 자연휴양림 19일 개장

객실 56개 200명 인원 수용

새만금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이 오는 19일 개장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군산시의 행정 지원과 산림청의 예산으로 시행한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지난 2018~2020년 공사기간을 거쳐 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국내 최대 규모로 2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 56개를 가지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체험과 교육 등을 위한 방문자 안내센터, 복합커뮤니티센

터, 해안탐방로(4.2km), 전망대 등 시설을 갖췄다.

시와 산림청은 개장 전 해양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를 통해 손님맞이에 한창으로, 휴양림 방문자는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움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산림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한 신시도 자연휴양림을 고군산군도 외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 6월 평화육교 개통 인근도로 확장공사도 추진

익산시는 평화육교 개통 시기에 맞춰 인근 도로에 대한 확장 공사를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오는 6월 평화육교가 개통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목천동 목상교에서 평화육교까지 도로를 확장한다.

시는 20억원을 투입해 연장 440m의 도로를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에 6월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평화육교로 통행이 가능해지면서 목천동과 인화동 등 인근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평화육교 개통 시기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이 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노후 경유차 지원 조기폐차 80억원 투입

익산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5,000여대를 대상으로 80억원을 투입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 지원사업은 800여대, 30억원을 활용한다.

이는 지난해 2200대, 37억원 예산 대비 290%가 증가한 규모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과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에서 본인 차량의 등급 확인과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9일까지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859-5436)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